

농어촌공 전남본부, 어촌분야 지역개발사업 전국 최다 4000억 집행

머니투데이 | 전남=나요안 기자

2024.12.10 14:38

<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4121014253321287&type=1>

기사주소 복사

┃ 지역개발사업으로 어촌의 미래 밝혀...어민 삶의 질 향상과 어촌 활력 제고



여수시 죽포항 정비 사업 전경/사진제공=농어촌공사 전남본부

농어촌공사(이하'공사') 전남본부가 최근 5년 동안 어촌분야 지역개발사업에 총 4080억원(연평균 816억원)을 집행하며 전남도가 어촌·해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.

이는 공사 9개 지역본부 중 최대 수준으로, 전남본부가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행, 준공 후 인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.

주요사업으로는 △어촌권역단위거점개발 △어촌뉴딜300 △어촌신활력증진 등이 있으며, 각 사업별로 어촌 거점별 생활SOC를 확충하고 낙후된 어촌·어항 정비, 경제·생활 플랫폼 조성과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어촌의 지속성 강화와 어민 삶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.

실제 공사가 참여한 여수시 죽포항 어촌뉴딜사업의 경우 노후된 방파제를 정비하고 월파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해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어민 생활공간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.

조영호 공사 전남본부장은 "어촌이 단순히 생계 공간을 넘어 지역민을 비롯한 누구나 살고 싶고, 찾아오고 싶은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"고 말했다.

[저작권자 ©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' 머니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